

# 포스트모더니즘 문학과 기독교적 수용의 문제

김봉균/ 가톨릭대 교수·문학평론가

## I. 두 개의 반역

역사의 진보는 반역의 산물이라고 세속주의자들은 말한다. 르네상스적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서양의 근대 문학은 프로메테우스의 반역을 진보의 결정적 계기로 본다. 헤겔·포이르바흐·마르크스의 변증법은 집단주의적 반역의 현저한 예이고, 토인비의 도전과 응전의 이론은 자유 사회의 반역의 원리라고 그들은 말한다.<sup>1)</sup> 그들에게 성 어거스틴의 ‘신(神)의 도전’이나 C. 도슨의 구속사적(救贖史的) 역동 이론<sup>2)</sup>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한갓 소음(noise)이다.

서양의 문명사에는 두 개의 큰 반역이 있다. 아담과 하와, 프로메테우스의 반역이 그것이다. 전자는 반역의 관성과 프로메테우스의 항연에 견인되어 세속사의 진보주의와 영합하였고, 이것이 세속사의 주류를 이루었다. 반면에 에덴에의 반역에 맞선 ‘말씀’ 복원의 ‘선한 싸움’의 역사는 격한 도전과 시련의 파란 앞에 지금 서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20세기가 물려준 이 시대의 가장 큰 반역의 물결로서, 드러나는 현상이 다양하여 핵심 포착이 어렵다. D. 헤브디지의 말대로, 포스트모더니즘의 공간은 개념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다양한 사회적 경향과 지적 전통이 연합, 충돌하는 상충의 현장’이다.<sup>3)</sup> ‘탈모더니즘’, ‘반모더니즘’, ‘후기 모더니즘’ 중의 어느 것인지, 포스트모더니즘은 정체성마저 확인되지 않은 한 시대의 징후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1960년대 말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적 문화 현상은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칠 만큼 그 기세가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주체의 해체와 미학적 대중주의로 요약되는 포스트모더니즘 문화는 정통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분명 에덴의 ‘말씀’에 대한 반역의 기호 체제다. 이 글이 문제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섬기는 ‘말씀’의 문학 안에 포스트모더니즘적 가치를 수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 II.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의 실상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긍정적, 부정적 계승자다.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을 이해하기 위하여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이 지향하는 주체의 해체 또는 탈중심주의와 미학적 대중주의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다.

### 1. 모더니즘 문학과 포스트모더니즘 문학

1) 역사 인식의 관점을 인과론(因果論), 진화론, 변증법, 도전과 응전 이론, 화해론, 초월론 등으로 봄.

2) Christopher Dawson, *The Dynamics of World History* (New York : Sheed & Ward Inc. , 1956), pp.248 ff. 참조.

3) Chris Jenks, *Culture*(London : Loutledge, 1993), p.137 참조.

모더니즘은 20세기 전반기의 문화사적 특성을 대변한다. 제1차 세계 대전 후의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과도한 합리주의와 확고 부동한 객관적 진리에 회의를 표하며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가운데 출현한 것이 모더니즘이다. 모더니즘은 해석의 주관성, 다양성, 예술 지상주의, 기교주의, 파편화, 구조 지향성 등을 보이며 미학적 정통주의자들에게는 당혹감을 준다.<sup>4)</sup> 또한 중심의 와해, 무질서, 절망, 무정부 상태, 회의주의와 불확실성의 논리에 의존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당대의 혼돈과 무질서에 대한 치유책을 ‘권위’와 ‘중심’에서 찾았던 것은 아이러니다. 모더니즘은 당대의 파편화된 가치와 무질서의 상태를 신화 시대나 중세의 경우와는 다른 의미의 새 질서와 총체성이 회복된 상태로 전화시키기 위하여 저 같은 문학적 장치를 동원한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적 거점은 모더니즘의 저 같은 이상을 부인하는 데에 자리한다. 모더니즘이 추구한 질서와 총체성의 회복은 허위요 기만이라고 본 것이다. 파편화된 현실의 무질서를 그대로 수용하자는 것이다. 즉, 모더니즘이 지목한 반역의 대상은 전통과 인습이고, 질서 회복의 축으로 삼은 것은 권위와 중심이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이 의존한 권위와 중심에 대한 반역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파악되는 것이 어떤 사상이나 신념, 고답적 전통과 권위주의, 획일적 가치 또는 가치와 총체성에 대한 부정과 해체 현상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모더니즘과 결별한다.<sup>5)</sup>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가치 상대주의를 다원주의와 해체론으로 무한 개방한 극한적 가치 파편화 현상을 보인다. 포스트모더니즘을 모더니즘의 지속이면서 반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sup>6)</sup>

이를테면, T.S. 엘리엇의 시와 시학은 모더니스트의 권위와 중심, 고전적 질서와 총체성에 대한 향수를 함축한다. 그의 대표작 ‘황무지(The Waste Land)’에는 각국의 신화와 고전적 상상력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시학에서 권위와 중심 지향의 매니페스토를 선포한다. 문학이 문학인가의 여부는 문학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문학의 위대성 여부는 문학적 기준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문학 작품은 윤리적 평가를 거쳐야하며, 마침내 신학적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비평가적 신조다. 그가 의지하는 것은 주지주의 시학이며, 정신적 지주는 그리스도교 정신이다. 위대한 문학에는 위대한 정신적 지주가 있으며, 엘리엇의 경우 그것은 그리스도교 정신이었던 것이다.<sup>7)</sup>

포스트모더니스트는 이러한 정신적 지주 이론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가치의 절대성을 부인하며 중심과 주변의 주종 관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의 기독교 수용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 2. 해체론과 문학

4) Anthony Giddens, "Modernism and Postmodernism", New German Critique, vol. 22(1981), pp.11 ~ 13 참조.

5) Patricia Waugh(ed.), "Postmodernism and Literary History", Postmodernism (New York: Routledge, Chapman and Hall, Inc. , 1992), pp.22 ~ 23 참조.

6) 박영희,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통합 연구 22 (서울: 통합연구학회, 1994), p.114 참조.

7) T.S. Eliot의 “Religion and Literature” 참조.

포스트모더니즘은 어떤 강력한 단일 체계모니에 의한 일방적 지배를 용납하지 못한다. 이런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폭발한 것은 물론 1960년대다. 니체나 하이데거의 철학적 담론에서 연유된 해체론(deconstructionism)은 1966년 10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후기 구조주의자 J. 데리다(Jacque Derrida)의 ‘인문 과학 담론에서의 구조, 기호, 작용’에서 촉발된 것이라고들 말한다.<sup>8)</sup>

중심은 전체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지만, 그것은 (전체의 일부분이 아니므로) 전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의 중심은 어느 곳이나 존재한다. 중심은 중심이 아니다.<sup>9)</sup>

이것은 종래의 로고스 중심적 사고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해체주의 문학은 그러기에 ‘의심하기 시학’에서 출발하며, 절대적 진리와 선을 부정한다. 인식적, 도덕적 ‘의심하기 시학’에 의존하는 해체주의 문학은 언어에 대한 회의로 귀결된다. 언어만으로 현실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언어 외의 온갖 기호까지 총동원된다. 가령, 해체시의 경우 현실은 단편적으로 표절, 편집되어 있을 뿐, 거기서 통일성 있는 논리는 짚이지 않는다. 왜곡된 현실을 왜곡되게 표현하는 해체시의 정체는 비속어와 욕설 따위가 난무하는 언어의 테러리스트라 하겠다.<sup>10)</sup>

모더니즘 시가 그랬듯이, 포스트모더니즘 시도 도시시다. 한국의 경우, 도시시의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은 일상성과 세속주의, 태도의 희극, 영원한 현재와 분열증, 문명 비판과 주체의 죽음 등으로 뜻매김된다.<sup>11)</sup>

모더니즘 시에 반역한 반엘리트주의(유규원, ‘시인 구보 씨의 1일’), 세속주의, 탈신비주의(황동규, ‘건넌 수 없이 가벼운 존재들’, 장경린, ‘라면은 통통’, ‘간접 프리킥’)의 도시시들에서 형이상학적, 심리학적 깊이를 캐는 것은 부질없다. 일체가 일상성과 세속주의의 소품처럼 전락해 있다.

브라질 팀이  
우리 편 문전을 향해서  
간접 프리킥을 하려는 순간  
사타구니를 쥐어짜듯 감싸고

일렬 종대로 늘어선

---

8) 20C 초 스페인의 문학가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고, 그들 중 페 데리코 데 오니스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 시선집」, 1934, 서문)와 더들리 피츠 (「현대 아메리카 시 선집」, 1942, 결론)가 이를 부각시켰으며, 1940년대 말 미국 시인 랜덜 재럴·존 베리먼·해리 르빈, 1950년대 말 어빙 하우(「대중 사회와 포스트모던 소설」, 1959) 등이 문학 비평 용어로 사용, 정착시킨 배경사를 내포한 것임. Ihab Hassan, "Toward a Concept of Postmodernism", the Post Modern Press, p. 85 ff.

9) Donato(ed.), The Structuralist and Controversy : The Language of Criticism and Sciences of Man(Baltimore : Johns Hopkins Press, 1982).

10) 김준오, 도시시와 해체시(서울 : 탑 출판사, 1992), p. 17 참조.

11) 김준오, 위의 책, pp.117~139 참조.

1919. 3. 1.  
1945. 8. 15.  
1950. 6. 25.  
1961. 5. 16.

(장경린, 간접 프리킥)

이 시에서는 3·1 운동, 8·15 광복, 5·16 군사 쿠데타 같은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 한갓 축구의 간접 프리킥의 위상으로 격하되어 있다. 심지어 원효 같은 큰 승려도 ‘지하철을 내려 험령한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바람이 세찬 장안 거리를 걷는, 견딜 수 없이 가벼운 존재들’ (황동규)의 무리 속으로 소실되고 만다.

이는 표층적 의미와 심층적 의미가 충돌하는 아이러니의 양상을 보이며, 삶과 역사의 통고 체험(痛苦體驗)은 심층에 묻힌다.

해체시의 특징은 세속성, 경박성이다. 따라서 해체시는 진지하고 경건한 것과는 거리가 멀고, 희극적·유희적·즉흥적이다.

이제 책을 덮고 거리로 내려오라  
방 안에 갇힌 문법학자여  
책상다리로 앉아 있으며 떨어져 죽을 염려는 없겠지만  
우리 마음은 아직 저 킁킁한 안개 골목  
풍문에 싸인 산장 여관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없는 호각 소리  
그러나 진실은 아름답게 존재한다  
거기엔 선생도 학생도 없지만  
청강생들이 모인다  
청바지를 입어라 파우스트  
다시 술렁이는 혼돈 속으로 들어가라

(이윤택, 청바지를 입은 파우스트)

철학자이며 대문호인 파우스트에게 청바지를 입혀 희화화(戲畫化)한 시다. 이 같은 희극적, 유희적인 어조(tone)는 본질적으로 해체주의의 범주에 든다. 이는 무엇인가 가득 찬 듯한 이 세계는 실상 ‘가득 찬 빈터’ 일 뿐이라는 허무주의적 부재감(不在感)에서 유래한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는 절대적 진리나 이념, 합리성이나 본질에 회의를 품는 불확정성, 불확실성과 의심하기 시학에서 출현한 것임이 여기서 드러난다.

현대인은 ‘오늘’에 존재를 고정시켜 놓는다. ‘어제’와 ‘내일’을 잇는 지속성(duration)이란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무의미하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존재관은 찰나적인 충격 체험과 순간순간 해체되는 체험의 파편들 속에서 개아(個我)의 정체성은 부각될 수 없는 불연속적인 것이다.

나는 언제나 오늘만을 사랑한다.  
오늘은 주택 은행에 월부금을 내는 날.  
(김광규, 오늘)

이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이 포착하는 존재의 파편성, 찰나성 곧 ‘하루살이’와 ‘일회용’의 실상을 표출한 대목이다. 이런 시의 화자는 시간의 지속성과 경험의 통일성 포착에 실패하는 분열증세를 보인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시시, 해체시는 기술 낙원(Technopia), 컴퓨터 낙원(Computerpia)으로 표상되는 이 시대의 도시 문명에 대하여 절망감을 표출한다.

한때는 선지자의 예언처럼 고독했던  
그러한 절망이  
이제는 도처에서 천방지축으로  
장미처럼 요란하게 피고 있는 시대

죽은 자의 욕망까지 흔들어 깨우면서  
그 위에 내리는  
시도 때도 없는 산성비  
사람들은 모두 우산을 쓰고 있다.

비극이 되기에는  
너무나 흔해 빠진 우리 시대의 비  
(이형기, 전천후 산성비)

우리 시대의 절망적 시대상을 ‘산성비’에 비유한 이 시에서 감지되는 것은 강한 문명 비판적 어조다.

도시 문학은 지난 3백 년 동안 서구 또는 서구화된 사회 도처에서 개인과 국가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도시 생활(urbanism)은 현대 문화의 심장부에 자리해 있고, 우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현대 도시는 상업화·산업화·세계화의 단계를 거치며 발달했고, 이에 따라 로맨틱 리얼리즘·자연주의·모더니즘·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을 낳았다. 유토피아 소설·고딕 소설·탐정 소설·과학 몽상 소설·디스토피아 소설(dystopian novel)도 도시 문학의 하위 장르다.<sup>12)</sup>

### 3. 문화 다원주의와 문학

새 세기에 우리는 폐쇄적 문화 정치학으로는 생존할 수 없이 되었다. 실체론(實體論)보다는 관계론, 순혈주의(純血主義)보다는 혼혈주의, 택일론(擇一論)보다는 병합론이 득세하게 된 것이다. ‘퓨전 요리’와도 같이 바야흐로 혼합 문화 시대가 열리고 있다. 문화란 ‘충돌’이 아닌 ‘화해’의 관계로 ‘창조적 만남’의 무대를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형식 논리에 우리는 대체로 공감하나, 크게 우려되는 것은 S. 헌팅턴(Samuel Huntington)식 ‘문명의 충돌’이다. 앞으로 이질적인 문명, 문화의 충돌은 불가피하며, 미시적(微視的)

---

12) Richard Lehan, The City in Literature(Berk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p. 3 참조.

으로 폭력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층선은 이슬람 이웃의 정교·힌두·아프리카·서구 그리스도교 문명 사이에 놓여 있으며, 거시적(巨視的)으로는 서구와 비서구의 양상을 보이면서 이슬람과 기타 아시아, 이슬람과 서구 사이에서 충돌이 가장 격렬하게 나타나리라고 그는 예측한다. 공산권의 몰락과 미국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의 도도한 기세 앞에서 비서구권(非西歐圈)은 민주주의, 시장 경제, 제한된 정부, 인권, 개인주의, 법치주의 등의 서구적 가치에 동조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지금 비서구권의 지배적인 태도가 회의주의와 격렬한 반발의 양상을 보이는 것도 당연하다고 하겠다. 헌팅턴의 예견은 주목할 만하다. 서구 문명은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의 관계에서는 갈등의 소지가 높지 않고, 특히 라틴 아메리카와 서구의 관계도 원만할 것으로 그는 말한다. 러시아, 일본, 서구의 관계는 협력과 갈등의 요인을 안고 있어, 서구 문명과 이슬람, 중국 문명 사이에서 그네 역할을 하리라고 본다.<sup>13)</sup>

이에 대하여, 독일 헤센 평화 및 갈등 연구소장 뮐러는 헌팅턴의 문명 충돌 이론이 도그마이며, 서구에 적대적인 문명에 대한 가설이야말로 허구라고 본다. 그는 헌팅턴이 자기의 이론 전개에 불리한 것은 제외하고, 유리한 것만 논거로 채택한 오류를 범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헌팅턴의 충돌 이론은 공산주의에 대체될 ‘새로운 적’ 찾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뮐러는 폄하한다.<sup>14)</sup> 그러나 인류의 미래사를 예견하기는 극히 어렵다.<sup>15)</sup>

아무튼 미국식 영어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체제를 주축으로 한 신자유주의는 정보 제국주의의 기미와 함께 문화 제국주의로 다가온다. 이와 함께 서구 사회는 비서구 사회, 제3, 4세계의 문명에 대한 탐구의 자세가 진지한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선불교(禪佛敎)와 노장사상(老莊思想)에 대한 친화력은 증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서구 문화와의 충돌의 단계를 지나 그것의 수용 역량은 충분하다. 다만 샤머니즘적 기층 문화(基層文化), 유·불·도교의 중층 문화, 서구의 과학 문명과 기독교 문화 간의 관계 정립 문제는 본질적인 과제로서 남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막스 베버가 말하는 ‘동양의 합리주의’다. 서양의 청교도적 합리주의는 그 모델인 신(神)의 질서로써 세계를 변혁하려 한 내세적 초월주의다. 반면에 동양의 합리주의는 현실 세계에 내재하는 초월적 질서를 합리화함으로써 현실 세계의 모순 극복을 위한 규범적 척도를 제시하는 현세적 초월주의다.

동양적 합리주의는 ‘영원과의 결별과 유한성으로의 이행’을 지향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제휴할 가능성이 크다. 공·맹·주자의 현세주의, 노자·장자의 무위 자연(無爲自然) 사상과 포스트모더니즘과의 접속은 이미 시작되었다. 동·서양 비교 사상론의 정립이 시급하게 요청

13)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이희재(역), *문명의 충돌*(서울 : 김영사, 1996), pp. 243~245 참조.

14) Haral Müller, *Das Zusammenleben der Kulturen* (Frankfurt am Main: Fischer Taschenbuch Verlag GmbH, 1998). 이영희, *문명의 공존*(서울: 푸른 숲, 2000) 참조.

15) 다음은 빗나간 예측들이다. ①20C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카네기). ②물리학 법칙은 다 발견되었다(노벨 수상자 앨버트 마이켈슨, 막스 본). ③우주에서 로켓이 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뉴욕 타임스 신문, 1920). ④원자탄은 비행기로 나르기에 너무 무겁다(아인슈타인). ⑤볼셰비키 혁명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레닌). ⑥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리라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 ⑦21C 중반까지 인구가 폭발하여 세계 인구의 70%가 아사하고, 오존층 50% 이상이 파괴될 것이다(20C 말의 지식인들, 이는 아직 알 수 없음).

되는 상황이다. 영어, 중국어 문화권이 주도할 것으로 예견되는 21세기 문화 이론의 정립이 시급하다.

문제는 이 같은 상대주의적 가치관의 다문화주의가 문학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있다. 가령, 소설이나 드라마 인물들의 다국적, 혼혈, 배경의 혼재, 시공간의 우주화 현상이 빚어질 것이다. 작품의 주제가 다초점화하고, 엘리엇이 섬기어 마지않은 ‘위대한 문학의 위대한 정선적 지주’의 중심 이동 내지 해체 현상도 예상된다.

기독교는 이 문제에 심각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 4. 미학적 대중주의와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은 전통적 2분법을 붕괴시킨다. 고답적 엘리트주의의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 제1, 2세계의 문화와 제3, 4세계의 문화, 남성 중심주의의 가부장적 문화와 페미니즘 문화, 양성혼 문화와 동성애 문화(gay, lesbian culture) 등은 수평적 관계 복원을 시도하게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전통과 현실, 보존과 경신, 대중 문화와 고급 문화 간의 긴장의 장에 작용한다. 그런데 이 긴장의 장에서는 이상 더 후자의 용어가 전자의 그것보다 저절로 우위를 점하지 않는다. 이 긴장의 장은 이상 더 진보대 보수, 좌익 대 우익, 현재 대 과거, 모더니즘 대 리얼리즘, 추상 대 재현, 아방가르드 대 키치(kitsch)의 범주로 이해될 수 없다. 결국 모더니즘을 고전적으로 설명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던 그런 이분법이 붕괴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그 변화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sup>16)</sup>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미학적 대중주의와 페미니즘이다.

앞에서 본 해체시들의 세속주의와 탈신비주의는 미학적 대중주의와 결부되게 마련이다. 이는 J.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상호 텍스트성을 필두로 하여 텍스트 ‘제작 과정’을 반영하는 자기 반영성, 중심의 해체와 권위의 약화 및 정전(正典)의 상실로 인한 U. 에코(Umberto Eco)의 탈장르화 등과 함께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의 중요한 특성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패러디의 시학을 애호한다. 패러디는 과거와 현재의 텍스트뿐 아니라 현재의 여러 이질적 텍스트를 혼합하여 상호 텍스트적 장르 혼합 현상을 빚는다. 패러디는 다원주의, 대중주의 미학으로 지배 이데올로기에 도전하여 주변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반권위주의적 장치다. 이는 불가피하게 문학의 심미적 소통뿐 아니라 사회·역사적, 이데올로기적 맥락에까지 참여하여 이른바 순수와 참여의 대립이라는 경직성을 극복한다고들 말한다.

과거의 모방이면서 비판인 패러디가 벌써 함축하고 있듯이, 패러디는 모순과 이중성의 기교다. 문명 비판의 현대시에서처럼 지배 이데올로기에 연루되어 있으면서 이를 비판하고, 상품화를 이용하면서도 상품화에 도전하고, 타락된 세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타

---

16) Andreas Huyssen, "Mapping the Postmodern", *After the Great Divide : Modernism, Mass Culture, Postmodernism*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6), pp. 216 ~ 217. 박영희,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통합연구* 22(서울 : 통합연구학회, 1994. 6.), p.115 참조.

락된 세계를 비판하며, 연속성 가운데 불연속성을 보이는 모순과 이중성을 그 본질로 한다. 현대시의 어조가 본질적으로 ‘위악적’인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패러디 시는 아이러니와 역설의 기교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있다.<sup>17)</sup>

패러디를 기교로 자주 구사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는 이처럼 문명사의 한복판에서 혼신을 다하여 응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의 궤도 또한 크게 다를 것 없다. 가령, 도널드 바셀미의 ‘백설 공주’는 동화 패러디로 ‘시작-중간-끝’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와해시키고 파편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 윌리엄 버러우즈의 ‘별거벗은 점심’은 마약에 취한 환상으로라도 자유로워지려는 감정 표출의 극한성을 보여 준다. 또한 저지 코진스키는 ‘그냥 있기’의 주인공 ‘우연(Chance)’을 통하여 어떤 의미라는 것의 우발성, 자의성을 드러내며 미·소 양쪽의 정치 상황을 풍자한다. 그리고 사실을 추구하는 과정에 개인의 욕망이 개입하여 실재(reality)가 어떻게 변질되어 허구화하는가를 풍자한 나보코프의 자서전, 전기, 비평의 패러디도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의 기교이다. 그는 ‘롤리타’를 통하여 실재의 포착에 고심하는 작가의 노력을, 어린 소녀를 사랑하는 괴이한 중년 사내의 부질없는 욕망에 빗대기도 한다. 이들 작품은 ‘단련과 통제 아래 감추인 광기(狂氣), 전통과 보편적 구조 속에서 억압되어온 개성, 역사적 진실의 은폐에 대한 거부’ 등으로써 포스트모더니즘적 반역의 실상을 드러낸다.<sup>18)</sup>

포스트모더니즘의 미학적 대중주의는 이러한 거부와 반역에서 비롯된다. 소설의 경우, 모더니즘이 의식의 흐름이나 내적 독백과 같은 잠재 심리 추적에 몰입하는 등 고급 문학의 좌표를 견지했던 것에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은 반역을 꾀한다.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은 구체적, 일상적인 외부 세계를 다루는 대중 지향의 장르를 선호한다. 종래 통속 대중물로 폄시 하던 탐정 소설, 공상 과학 소설, 첩보 소설, 외설 소설, 로맨스 소설, 미국의 서부 개척 소설 등이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에서는 새로운 중심 장르로 부각된다 심지어 포스트모더니즘 비평가는 ‘이상적인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은 모더니즘 소설처럼 난해하지도 리얼리즘 소설처럼 진부하지도 않은 소설’로 규정한다. 다시 말하여,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은 ‘순수 문학과 대중 문학의 구분을 없이 하면서도 통속 문학으로 전락하지 않으며, 진부하지는 않으면서도 난해한 기교를 피하는 소설’이라는 것이다.<sup>19)</sup>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은 시의 경우처럼 인간의 창조적 상상력과 신성하고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대개는 종래의 작품을 패러디화한다. 또 결말 처리를 유보한 채 열어 둠으로써, 총체성의 회복이 불가능하고 절대 진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선악의 2분법적 구분이 불분명하고 논리와 순리가 통하지 않는 상대적 가치의 다원주의 시대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이다.<sup>20)</sup>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은 P.C.러보크의 ‘보여주기(showing)’ 기법이나 W.부스의 ‘저자의 죽음’, 작가의 입장과 일치하는 ‘믿을 수 있는 화자(reliable narrator)’ 이론에 대반역성을 노골화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그러기에 패러다임의 변혁이라기보다 그 ‘해체’로 보아야 할 까닭이 이에 있다.

17) 김준오, 앞의 책, pp. 174~5.

18) 권태영, “포스트모더니즘”, 김봉군 외, 신문예사조론(서울:우리문화사, 1994), p.456 참조.

19) John Barth, "The Literature Replenishment", The Atlantic Monthly, 379 (January, 1980), p.70. 박영희, 앞의 책, p. 121~2 참조.

20) 김성곤, 포스트모더니즘과 현대 미국 소설(서울:열음사, 1990), p.44 참조.



포스트모더니즘은 ‘실재의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한 ‘뉴 저널리즘 소설’을 출현시킨다. 사실이나 사건을 정확히 보도, 서술하는 양상을 취하면서 그것이 주관적 산물임을 드러냄으로써 보도의 객관성을 회의하는 태도를 취한다. 트루먼 카포티의 ‘냉혈 인간(In Cold Blood)’, 노먼 메일러의 ‘밤의 군대들(Armies of the Night)’ 등이 그 예다. 또한 존 파울즈의 ‘프랑스 중위의 여자’, 마즈케스의 ‘백년 동안의 고독’,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또한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작품들이다.

한국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이 물의를 빚은 것은 1990년대 초반이다. 김수경의 ‘즈윙’ (1990)과 하일지의 ‘경마장 가는 길’ (1990)이 단행본으로 출간되었고, 전영태가 하일지의 작품을 지목하여 ‘외래 문화의 박래품’ 짚으로 혹평<sup>21)</sup>하면서 작가와의 논쟁이 일게 되었고,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구효서의 ‘슬픈 바다’, 박일문의 ‘살아남은 자의 슬픔’, 이인화의 ‘내가 누구인가 말할 자가 누구인가’ 등도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장편 ‘경마장 가는 길’의 경우를 보자. 이 작품의 인물은 R, J, Q 등 영문 이니셜로만 등장하며, 사건도 허탄하기 짝이 없다. ‘주인공 R이 5년 반만에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거기서 3년 반 동안 동거했던 J라는 여성과 무의미한 성적 실랑이를 반복하는 것이 주내용’이다.<sup>22)</sup> 이해조의 신소설 ‘자유종’을 패러디화한 ‘즈윙’은 마약에 탐닉하는 남녀 주인공의 퇴폐적 성행위로 점철된 작품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둘로 갈린다. 기법의 참신성에 대한 찬사<sup>23)</sup>와 ‘제국주의적 문학의 에이즈’<sup>24)</sup>라는 상반되는 평가가 내려진 것이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피억압적 지위의 규정은 유전 결정론이 아닌 환경 결정론적 산물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시몬 보부아르의 ‘제2의 성’에서 생물학, 정신 분석학, 유물 사관을 기반으로 하여 여성이 ‘자유’를 향유해야 할 논거를 제시하였다. 여성은 남성들이 ‘타자(他者)’로 살도록 강요하는 바 운명적 수동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며, 남녀가 진실로 평등하기 위해서는 법률·제도·풍습·여론 기타 사회적 관계 개선뿐 아니라, 여성이 실존적 자각으로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부아르는 주장한다. 페미니즘은 H. 마르크제의 혁명적 정치 투쟁론, ‘성의 변증론’의 S. 파이어스톤, ‘성의 혁명’의 K. 밀레트 등의 논쟁을 거쳐 이제 보편적 사회 운동, 문화·문학 운동으로 기반을 넓혀 가고 있다.

영미 페미니스트 문학 비평의 단초는 V. 울프의 ‘그녀의 방’, S. 보부아르의 ‘제2의 성’으로 보며, 현대 페미니즘 비평은 B. 프란디의 ‘여성의 신비’ (1963)라는 것이 정설이다. 1970년대에는 I. 쇼왈터의 ‘그들만의 문학’, S. 길버트와 S. 거바의 ‘다락방의 미친 여자’ 등이 페미니즘 소설로 크게 부각된다. ‘다락방의 미친 여자’에서 제기된 여성의 공간 공포증, 건망증, 식욕 부진, 실어증, 밀실 공포증, 히스테리 기타 정신 질환 등은 페미니즘 문학의 준거로서 의의가 있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 초 남편의 폭력을 다룬 이경자의 ‘맺집과 허깨비’ 이후 고독하고 답답한 부부 관계를 제재로 한 김채원의 ‘겨울의 幻’, 부부 간의 끝없는 고독과 단절

21) 전영태, “포스트모더니즘 문제 많다”, 월간 조선 130호 (서울 : 월간조선사, 1991. 1).  
 22) 박영희, 앞의 책, p.126 참조.  
 23) 김천혜, “신선한 실험적 시도-김수경의 ‘즈윙’론”, 문학 정신 60호(서울 : 문학정신사, 1991. 10).  
 24) 이동연, “자유주의 소설 형태의 두 파산”, 실천 문학 22호(서울 : 실천문학사, 1991. 여름), p.59.

의식에 도전하는 오정희의 ‘불의 강’, ‘바람의 녀’ 등이 페미니즘 소설로서 문제작이다.<sup>25)</sup>

1960년대 이후 산업화, 정보화의 과정에서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무너지 가는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의 기반은 확고하다고 할 수 있다.

### Ⅲ. 기독교적 수용의 문제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을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 이는 그야말로 지난(至難)한 과제다. 그러나 이 시대 문화의 지배적인 흐름인 포스트모더니즘을 외면하는 것은 불가능한 문명사의 새 흐름 속에서 기독교는 이에 합당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독교적 수용은 타산지석(他山之石)이나 역설(逆說)의 논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첫째, 중심을 해체하는 해체론은 절대적 가치 또는 진리의 일률성(一律性, Einheit)을 붕괴시킨다.

기독교의 진리는 창조주 유일신의 ‘말씀’에서 발원하는데,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의 기호론은 이러한 진리의 중심을 무너뜨린다. 이에 따르면, 가령 ‘신(神)’과 ‘실’은 기표(記標, signifiant)의 자의적(恣意的) 차이에 따라 그 의미가 확정될 뿐이다. 종래에 기표와 기의(記意, signifié)는 1대 1의 관계에 있으며, 이 관계는 기의가 결정하는 것으로 여겼다. 이런 관계 확정의 궁극적 실체는 ‘초월적 기의’로서, 이것은 신이었다. 이 때의 ‘신(神)’은 초월적 기의로서의 신을 의미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과 그 문학에서 신이 신일 수 있는 근거는 초월적 기의가 아니라, 다른 기표와의 차이에 있을 뿐이다.<sup>26)</sup> 다시 말하여, 포스트모더니즘과 그 문학에서는 ‘수평/수직’, ‘시간/영원’, ‘현실/초월’의 대립 관계가 깨어지고, ‘수평, 시간, 현실’만 남는다. 수직의 하이에라키나 영원과 초월, 구원의 종교는 소멸한다.

만일 새 세기를 계속 포스트모더니즘이 세계를 지배한다면, 수평선과 수직선이 교차하는 좌표에서만 삶과 역사의 구원이 있다는 기독교의 십자가 상징은 소실될 위기에 처할 것이다. 우리 문학의 경우, 무속 신앙(샤머니즘), 유·불·도교, 기독교 문화를 동일 지평에 배열한 자리에서 수평적 가치 상대성을 주장한다면, 기독교 진리의 근본은 동요할 수밖에 없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 다원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는 비기독교 문화와의 ‘선교적’ 대화가 긴요해졌다.<sup>27)</sup> 비교 종교학, 비교 문화론의 중요성이 그만큼 증대되었다는 뜻

25) 김정자, “페미니즘”, 김봉군 외, 신문예사조론(서울: 우리문학사, 1994), pp.383 이하 참조.

26) 김정호, 포스트모던 문화 읽기(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p.24 참조.

27) 이 대화는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syncretism)를 지향하는 종교 상대주의·신경전주의, 정치 신학·토착화 신학·여성 신학적 문화와의 세속적 타협을 뜻하는 것이 아님. 전광식,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비판”, 통합 연구 22호, pp.57~63 참조.

이다. 기독교 신학은 물론 비기독교와 그 문화의 특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얻고서야 선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우선, 통합적 사고의 소산인 동양 문화와 분석적 사고에서 빚어진 서양 문화의 차이점부터 연구할 필요가 있다. 28)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의식(意識)의 표층부에 자리해 있는 한국의 기독교 문화는 그 중층, 기층을 흔들어 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는 아직 진정한 기독교 문화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진실한 고백일 것이다. ‘참회록’ 한 권 없는 한국 문학사가 그 현저한 예라 하겠다. 한국 기독교의 질은 기복성(祈福性)과 광신(狂信), 이단(異端)에 대한 잦은 시비는 무속 신앙의 부정적 영향 때문이다. 무속 문화는 3계사상(三界思想)의 기독교적 유사성과 신자의 ‘지성(至性)’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개인과 집단의 축복을 반대 급부로써 가늠하며, 광기(狂氣)서린 엑스타시와 몰교리(沒敎理), 몰윤리(沒倫理)를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인에게 무속 신앙은 알라-브라만-니르바나의 이슬람교·힌두교·불교 문화와 함께 ‘선한 싸움’의 대상이다. 29) 다만, 상대주의·다원주의적 가치관의 유한성 안에서 저들 종교 의식을 한 문화 기체로서는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기독교가 구원의 진리로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음 시를 보자.

지금, 하늘에 계시지 않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이 말씀이 아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그러나  
땅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거시기는 단 한 방울도 내려 주시지 않으셨으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고 있는 자들을 모르는 척하고 있듯이 우리의  
모르는 척하는 죄를 눈감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는 몇 만 년이  
라도 우리의 시험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다만 어느 날 우연히 악에서 구하려 들지는 말아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말해지고 있사  
옵니다, 언제나 출타중이신 아버지시여

아멘  
(박남철, 주기도문)

무신론적 실존주의의 그것과도 같은 빈정거림과 항변, 절망이 읽히는 해체시다.

여기서 기독교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역설의 진리’다. 진화론적 무신론의 텃밭에서 성장하여 인간의 영성(靈性, spirituality)을 부인하는 자연주의 문학의 처절한 존재의 붕괴를 역설로 되짚어내는 그 원리와 흡사하다.

둘째, 미학적 대중주의는 고급 문학의 엘리트주의에 도전한다.

고급 문학과 대중 문학의 만남은 순조로울 수 있는가? 고급 문학의 ‘순수’와 대중 문학의 ‘통속성’은 화해 또는 변증법적 통합의 미학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이 역시 만만찮

28) 김영진, 동양과 서양(서울:지식산업사, 1993) 참조.

29) 김봉군, 한국 소설의 기독교 의식 연구(서울 : 민지사, 1997), pp.61~93 참조. 김봉군, “밀레니엄 전환기의 문화 이론 비판”, 통합 연구 36호, pp.35~6참조.

은 과제다.

소통 장애 또 불능 현상을 빚었던 모더니즘 문학의 난해성은 대중성과 만나 극복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더니즘 문학의 그 ‘순수’를 파괴하는 대중주의는 문화의 하향 평준화 현상을 불러올 것이다. 특히 음란성과 폭력을 ‘전략 무기’로 삼는 대중 문학의 통속화는 문학을 경박한 찰나주의적 문명사의 황야에 폐기 처분하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기독교적 수용과 관련하여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대중 미학 당의정론(糖衣錠論)이다. 대중 문학의 의상 안에 본체인 기독교 진리를 감싸는 것이 한 방안일 것이다. 가령, 김성일의 기독교 장편 소설 ‘땅 끝에서 오다’, ‘땅 끝으로 가다’는 추리 소설적 기법으로 성서적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고 있다.

셋째, 페미니즘은 상호 주체적 평등 사상의 인격주의(personalism)에 갈음된다.

여성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는 한 성서의 한 대목만으로, 세속사의 여성 탄압사를 교회가 답습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사(救贖史) 안에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 결코 아닐 것이다.

기독교는 페미니스트들이 절규를 기본적으로 들어야 하며, 여성의 인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안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르크스적 투쟁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품안으로 달려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기독교, 특히 교회는 ‘중심’에 도전하는 ‘주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중앙 집권적 권위주의 체제로써 ‘하나님의 집’을 수호할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닫고 제2의 종교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것이 포스트모더니즘과 그 문학이 우리를 깨우치는 바 타산 지식의 교훈이요 역설적 진실인 것이다.

#### IV. 맺음말

포스트모더니즘은 패러다임의 변혁이라기보다 그 해체라고 우리는 이미 말한 바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의 중심의 해체 현상과 미학적 대중주의는 이 시대 문명사의 지배적 담론이 되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문명사적 반역이다. 기독교가 섬기는 ‘말씀’의 절대 진리와 그 일률성을 붕괴시키는 일대 변란이기 때문이다. 국내외의 문학 작품에서 그런 현상은 이미 나타나 있고, 이것은 N세대의 대중 문화에 영합하여 음란과 폭력성을 주조(主調)로 한 퇴폐성, 통속성으로 치닫는 경향을 보인다. 문화 상대주의가 기독교 문화의 ‘중심’을 뒤흔들고, 통속성이 기독교 윤리의 ‘경건한 성(城)’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수평적 다문화의 이 시대에 기독교는 폐쇄적, 권위적 문화 이론만으로 생존할 수 없이 되었다. 실체론, 택일론, 순혈주의보다 관계론, 병합론, 혼혈주의 문화가 득세할 것이다. 이에 기독교는 ‘선한 싸움의 병기’의 노출을 삼가면서 타문화를 당의(糖衣)로, 상대적 가치의 문화 현상으로 접하면서 기독교의 절대 가치, 절대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선교 방략’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변두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한국 기독교의 시급한 과제다. 특히 21세기에 페미니스트의 절규를 외면하는 교회는 ‘회칠한 무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교회, 신학교, 선교 단체의 관련자를 비롯한 모든 기독교인은 기독교 문학의 ‘체험적 진실’을 ‘체험’해야 한다. 대중 미학인 추리 소설의 기법으로 성서의 진리를 전파한 김성일의 소설들은 이 시대의 귀한 문서 선교의 자료가 아닌가, 포스트모더니즘 소설도 타산

지식으로, 역설적 진리의 문헌으로서 기독교에 공헌할 수 있다. 기독교는 아담과 하와의 반역뿐 아니라 프로메테우스의 반역을 심각히 주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신학교와 기독교 재단의 모든 교육 기관에 기독교 문학 강좌의 개설을 제안한다. 기독교 문학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신 ‘말씀’을 바로 세울 결정적 신앙 체험의 발인 까닭이다.

## 참고문헌

1. 김광역 외, 『문학의 다학문적 접근』,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2. 김봉균, 『한국 소설의 기독교 의식 연구』, 서울:민지사, 1997.
3. 김성기 외,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서울:민음사, 1994.
4. 김준오, 『도시시와 해체시』, 서울:탑 출판사, 1992.
5. 대중문학연구회(편), 『대중 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평민사, 1995.
6. 목영해, 『현대 상대주의 철학과 교육』, 서울:교육과학사, 1998.
7. 우한용, 『문학 교육과 문화론』,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8. 이정호, 『포스트모던 문화 읽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9. 최혜실, 『디지털 시대의 문화 예술』, 서울:문학과 지성사, 1999.
10. 태혜숙, 『미국 문화의 이해』, 서울:도서출판 증명, 1997.
11. 통합연구학회, 『통합연구』 22호, 1996.
12. A.E. Stanley, Hyper Talk & Hyper Text, London:Betterworth-Heinemann Ltd, 1992.
13. Alan Sokal & Jean Bricmont, 이희재 역, 『지적 사기』, 서울:민음사, 2000.
14. Anthony Easthope, 임사훈 역, 『문학에서 문화 연구로』 서울:현대미학사, 1995.
15. Chris Jenks, Culture, London:Routledge, 1993.
16. Donato(ed.), The Structuralist and Controversy: The Language of Criticism and Sciences of Ma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2.
17. emerge 새천년, 중앙일보, 2000 .1.
18. Graeme Turner, British Cultural Studies, second ed. , New York: Routledge, 1996.
19. Harald. Müller, Das Zusammenleben der Kulturen(Frankfurt am Main: Fischer Taschenbuch verlag GmbH, 1998). 이영희, 문명의 공존(서울:푸른 숲, 2000).
20. July Rivkin & Michael Ryan(ed.), Literary Theory: An Anthology, Massachussets: Blackwell :Publishers Inc., 1998.
21. Max Weber, Gesammelte Aufsaltze zur Religionssoziologie I, Tübingen, 1986.
22. Paricia Waugh, Postmodernism(New York: Routledge, Chapman and Hall, Inc. , 1992.
23. Peter Brooker. A Concise Glossary of Cultural Theor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24. Richard Lehan, The City in Literature, Berk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25. Samuel Huntington, 이희재 역, 『문명의 충돌』, 서울:김영사, 1996.
26. Steven Johnson, Interface Culture, San Francisco; Harper Edge, 1997.

김봉균/서울대학교 국어과, 법학과를 거쳐 서울대 대학원 졸업. 문학 박사, 문학 평론가, 세계한민족통일학회 준비 위원장, 가톨릭대 인문 대학장 역임.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객원 교수, 현재 가톨릭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저서에 『문장 기술론』, 『문학 개론』, 『한국현대작가론』, 『한국소설의 기독교의식 연구』 등 외 논문 다수.